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Gabriel Kim 김가브리엘(명식) (510) 562-3843

사무실 Tel (510) 553-9434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Fax (510) 639-4842

thmschae@yahoo.com

standrewoak@gmail.com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대건회관)		흔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106 회의실)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 회의실)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50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제 1독서] 이사야서 5, 1-7

[화답송] 시편 80(79), 9, 12, 13-14, 15-16, 19-20(◎ 이사 5, 7-11 참조)

◎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라네.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라네

- 당신이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하나를 뽑아 오시어, 민족들을 몰아내고 심으셨습니다. 그 줄기들은 바다까지, 그 햇순들은 강까지 뻗었습니다. ◎
- 어찌하여 당신은 그 울타리를 허물어, 지나가는 사람마다 따 먹게 하셨나이까? 숲에서 나온 멧돼지가 파헤치고, 들짐승이 짓밟아 버리나이다. ◎
- 만군의 하느님, 어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손이 심으신 나뭇가지를, 당신 위해 키우신 이들을 찾아오소서. ◎
- 저희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리다. 저희를 살려 주셔서, 당신 이름을 부르리다. 주 만군의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다. ◎

[제 2독서] 필리피서 4, 6-9

[복음 환호송] 요한 15, 16 참조

◎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

[복음] 마태 21, 33-43

성가	8시 미사	입당 461	봉헌 219 512	성체 151 160	파견 271
	11시 미사	입당 461	봉헌 219 512	성체 151 160	파견 271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연중 제27주일(10월 5일)		연중 제28주일(10월 12일)		연중 제29주일(10월 19일)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김안토니오(휘)	전베로니카(진영)	이바오로(명국)	이엘리사벳(자영)	임루카(승원)	권미카엘(창모)
제 1 독서	이바오로(명국)	최다니엘(대연)	강요한(신호)	김길베르토(광호)	최베네딕토(환준)	정요한(석준)
제 2 독서	정스텔라(애리)	영어	김안젤라(영선)	전베로니카(진영)	최베네딕다(수영)	손리디아(정옥)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거룩하지 못한 밤

그해 겨울은 정말 추웠습니다. 몇 십 년 만의 추위였다는 데 군인이 아니었다면 기억이 없었겠지요. 철원 모 부대에서 후임병으로 겪는 추위는 가혹했고 특히 더 추웠던 그날의 기억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솔직히 그날이 가장 추웠던 날이었던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 기억에 가장 추운 날이 분명한 게 그날이 성탄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정대로였다면 따뜻한 성당에서 행복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성탄 밤 미사를 봉헌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추워서 차량운행조차 못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하느님 잔치에 초대받았는데 불쌍한 군인은 거기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느님은 죄인까지 사랑하신다면 신학생은 너무 가혹하게 다루시는 게 아닙니까? 미사에 함께 하지 못하게 할 것 같으면 덜

춤이라도 해주실 것이지 정말 이권 아니었습니다. 입을 열면 믿음보다 욕이 먼저 흘러나오는 상황은 결코 '거룩하고 고요한 밤' 에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근무를 마치고 총기함에 총을 집어넣으면서 총신을 잡는 따위의 실수는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총신에 붙어있는 지문들을 보면서 전혀 거룩하지 못한 단어들이 끝없이 샘솟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 하필이면 성탄 밤에 제 마음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모실 수 없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의 군대에 대한 기억은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군대에서 하느님을 가장 가깝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있을 때보다도 더 달콤한 미사 전례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 성탄의 밤 조차도 저는 모시지 못했는지언정 주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이 계셨음을 이젠 압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릴 수 있었던 것도 군대에서였습니다.

세상이 그러한 만큼 군대가 바뀌었다고도 하고 좋아졌다고도 합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아무리 시설이 좋아진다 해도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를 빼앗겼다는 상실감, 이것보다 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억울함,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죽이는 연습을 해야만 하는 상황의 딜레마, 국가 수호라는 위대한 사명과는 전혀 상관없이 삼질을 주 업무로 삼아야 하는 현실의 괴리감, 그밖에 합리적인 판단 자체가 힘든 상황이 계속되는 한 군대는 군대일 뿐이요, 군인은 군인일 뿐입니다.

안타깝게 최근 군대에서 아픈 소식들이 연이어 전해집니다. 부모님들도 걱정이고 군대 가야 하는 청춘들도 불안하기만 합니다. 절망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들이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여전히 군대는 두렵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할 곳으로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가 하느님 체험의 최전방이요, 효심을 끌어오르게 하는 용광로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군대는 거룩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전히 타인을 위한 희생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군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군대가 필요 없어질 그 날을 허락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장병 여러분, 힘겹게 얻은 신앙심과 효심은 제대하면서 국방부에 반납하지 말고 꼭 가지고 오세요, 제발~!”

오병수 스테파노 신부
인천교구 복음화사목국 가정복음화부 부국장

2014년 신앙생활 지침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코린1, 12,7)

생명의 말씀

복도 지지리도 없는 성모님? 복된 여인 성모님!

성모님과 관련된 성월은 한 해 중 가장 좋은 계절에 맞이하게 됩니다. 5월에는 성모성월, 10월에는 목주기도 성월, 성모님의 삶이 하느님의 은총을 가득 받으신 분이어서 그런가 봅니다.

하지만 현실의 삶에서 성모님의 모습을 살펴보면 도대체 복된 여인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나 할지라도 어린 나이에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의 몸으로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듣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간음에 해당하는 죄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남편 될 사람은 날 어떻게 볼지, 가족들은 또 어떻게 볼지, 과연 이 아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모두가 믿어줄지 걱정이 한 가득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느님의 안배로 남편 될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 혼인을 하게 되지만, 출산의 기쁨을 뽐내려는 마구간에서 보냅니다. 목동과 동방박사의 축하를 받고 예수님은 태어나셨지만,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집트로 피신을 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아기 예수님을 봉헌할때는 시메온과 한나의 예언에 기쁨도 잠시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아픔을 겪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덧 소년이 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사흘 만에 애타는 마음으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찾았는데, 성모님은 소년 예수님에게서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혹 여러분이 자녀를 잃어버리고 이런 상황에 놓이셨다면 “아니 이런 4가지 없는 녀석을 보았나!” 하며 맘매를 드셨겠죠?

이제 공생활을 시작하는 예수님의 멋진 모습들을 보면서 성모님은 마음이 뿌듯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붙잡아갈 구실을 찾고만 있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금씩 멀리하게 됩니다.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죄인으로 몰리고, 조롱받고, 고문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이 내 눈앞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는 것을 보게 된다면 어떠시겠어요?

일단 이 정도만 봐도 성모님이 무슨 하느님의 복을 받으셨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복도 지지리도 없이 사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이 흔히 바라고, 원하는 복을 성모님은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느님의 복을 얼마나 많이 받으신 분인지….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복과 하느님이 주시는 복은 분명 다르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목주기도 성월이 되셨으면 합니다. 더불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군인들을 위해서 목주기도를 해주는 센스를 발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형 신부
일반병원사목위원회
삼성서울병원 원목사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김명식 가브리엘 신부님과 오클랜드 한인 천주교 공동체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오클랜드 한인천주교 공동체의 창립30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한 은총의 시간으로 인도하신 하느님의 사랑과 믿음에 감사드리며 저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윤지총 바오로와 123명의 동료 순교자의 시복미사를 집전하시며 저희에게 주신 강론 말씀의 일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우 자주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의해 도전 받음을 체험합니다.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양보해 타협하고, 복음의 근원적 요구를 희석시키며, 시대정신에 순응하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순교자들은 그리스도를 모든 것 위에 최우선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다른 온갖 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원한 나라와 관련해서 보아야 함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순교자들은 우리 자신이 과연 무엇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이 과연 있는지를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중략).

복자 윤지총 바오로와 그 동료 순교자들이 남긴 유산, 곧 진리를 찾는 올곧은 마음, 그들이 신봉하고자 선택한 종교의 고귀한 원칙들에 대한 충실성, 그리고 그들이 증언한 애덕과 모든 이를 향한 연대성, 이 모든 것이 이제 한국인들에게 그 풍요로운 역사의 한 장이 되었습니다.

순교자들의 유산은 선의를 지닌 모든 형제자매들이 더욱 정 의롭고 자유로우며 화해를 이루는 사회를 위해 서로 화합하여 일하도록 영감(靈感)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와 온 세계에서 평화를 위해, 그리고 진정한 인간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의 인도로 오클랜드 한인 공동체가 앞으로도 계속 복음화에 앞장서는 활기찬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며, 시복미사 중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봉헌하신 기도에 제 자신을 일치시킵니다: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전구와 더불어 모든 한국 순교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온갖 좋은 일과 믿음 안에서, 또 한결같이 거룩하고 순수한 마음과 사도적 열정 안에서 항구함의 은총을 받아, 사랑하는 이 나라에서부터 아시아 전역을 거쳐 마침내 땅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오클랜드 교구장, 마이클 C. 바버 주교 드림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선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날짜		지 향	봉 헌 자
10월 5일 일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이케네스(상열)	가족
	연	이마리아(정재)	이시몬/아네스
	연	박대건안드레아(월년)	노소피아(용례)
	연	양마리아(석순)	김엘리사벳
	연	양마리아(석순)	이아가다(윤자)
	연	양마리아(석순)	황안나
	연	양마리아(석순)	이베로니카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박마리아(희원)	가족
	생	고미카엘라(혜경)생일	황안나
	생	김에드워드(지성)	김케네스(관용)
	생	안나회원들의 건강	안나회
	생	원프란치스코(광희)	찬미성가대
	생	김데레사(승희)	찬미성가대
	생	조카타리나(용숙)	조안셀모(승훈)
	생	임바오로(병길)	임아가다(주원)
10월 7일 화	연	최베드로(휘종)	가족
	생	육마이클(창우)	육아가다
10월 9일 목	연	이마리아(정재)	이시몬/아네스
10월 11일 토	생	전데레사(윤자)	찬미성가대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78	213	19	310
헌 금	\$556	\$1,210	\$14	\$1,780

< 교무금 > \$3,620

전덕천(9-10) 이영길(9-10) 강시구(8-10)
 배젼마(9-10) 이정연(10) 박민진(9) 신진남(3-12)
 김명환(10-12) 이건용(10) 김영희(10) 차영화(11)
 박호영(10) 김옥(1-12) 구창희(9-10) 변귀태(9-10)

< 성소후원금 > \$40

차영화(10-11) 박호영(10)

< Bishop's Appeal > -

< 감사헌금 > -

~~~~~ 오늘은 본당 30주년 기념으로 전신자 점심이 제공됩니다. ~~~~~

2014년 신앙생활 지침 :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코린1, 12,7)

- 공 지 사 항 -

◆ 10월은 목주기도성월이자 전교의 달입니다. 목주기도를 자주 바치는 가운데 예수님과 성모님의 신비들을 깊이 묵상하며 믿음을 더욱 깊게 하려는 의미입니다. 세계 평화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목주기도를 자주 바칩시다.

◆ 10월 목주기도성월에는 미사 전에 목주기도를 바치고 미사를 시작합니다.

◆ 10월 7일은 본당 창립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십시오.

◆ 오늘 점심 식사는 본당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본당의 요아킴회/안나회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 2차 헌금 안내  
10월 5일(오늘) : Catholic Voice  
10월 19일 : World Mission Sunday(전교주일)

◆ 모임  
\* 프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기체조 : 매주 교중미사 후 대건회관 1회의실  
\* 대건산악회 : 매주 화요일/문의 : 510-847-3014  
\* 평협회의 : 10월 12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107호실  
\* 주일학교 학부모 모임 : 10월 12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106호실

◆ 서중부 제19차 전체 울드레아  
일시 : 10월 11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장소 : 산호세 한국순교자 성당  
참가를 원하시는 꾸르실리스따님들은 연락바랍니다.  
Shuttle이 필요하신 분들은 서비스해드립니다.  
연락 및 접수 : 이창용 레이몬드 510-688-0157

◆ 성장세미나(북가주 성령쇄신 봉사회)  
주제 : “저마다 받은 은사에 따라,  
하느님의 다양한 은총의 훌륭한 관리자로서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십시오.” (1베드로 4:10)  
강사 : 한연홍 다니엘신부 (천주교 수원 교구)  
일시 : 10월 17일(금) 오후 4시 - 10월 19일(일) 오후 4시  
장소 : The Jesuit Retreat Center, Lost Altos  
참가비 : \$260  
신청 : 각 본당 성령기도회 510-684-7207

| 10월 구역모임 |              | 고린도전서 15-16장 |
|----------|--------------|--------------|
| 2 구역     | 10월25일(토) 6시 | 윤종진 엘리야 댁    |
| 7-2구역    | 10월25일(토) 6시 | 한재구 즈카리아 댁   |
| 9 구역     | 10월25일(토) 6시 | 류현욱 베르나르도 댁  |

◆ 본당 전 신자 초청 낙엽따라 가을산행 안내  
일시 : 10월 18일(토) 8:45AM까지 성당 주차장 집합  
(Lake Chabot 공원 정문 안 주차장으로 직접 오셔도 됨)  
장소 : Lake Chabot 공원 정문(Castro Valley쪽) 등산로  
행사 : 카이저 병원 건강관리 담당 의사의 요가시범과 East Bay 공원국 숲해설가의 설명을 들으며 산행 후 비빔밥 점심 제공, 고전무용단 공연 감상  
문의 : 대건산악회 510-847-3014(참가비 없음)

◆ 9구역에서 미역국 판매 이익금으로 성당 부역용품 구입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성모회에서 도토리 국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 성물 Sale 20%~!!  
본당 창립 30주년 기념으로 10월 한달 동안 성물들을 20% 할인 판매합니다.

◆ 9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사무장의 휴가 관계로 평일에는 사무실을 열지 않습니다. 토/일요일은 대체 근무자가 있을 예정입니다.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 아브라함(10/9) : 박인준, 이승현, 강성순, 심재구  
\* 사라(10/9) : 심진수

| 주일학교 소식                       |
|-------------------------------|
| - Sunday School 11:00 ~ 12:15 |
| - 영어미사 12시 30분                |

| 안국학교 소식                                                                   |
|---------------------------------------------------------------------------|
| - 10월 11일 : 북가주 협의회 주최<br>< 백일장 및 그림그리기대회 ><br>장소 : Quarry Lakes(Fremont) |